

순천시, 민관협치로 마을자치 시대 열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 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마을자치 민관협의체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순천시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활동가, 대학생, 공동체 활동가, 공무원 등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31인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마을자치 민관협의체 위원 31인 위촉 공동체 간 협업 통해 마을 사업 발굴

마을자치 민관협의체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와 공무원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따라서 공동체와 자치에 대해 함께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과 공무원, 공동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마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멀리서도 사람들 간 소통이 가능한 소음이 없는 도시, 도로에 차가 없는 정원 도시 순천을

꿈꾼다."며 "민관협치를 통해 살기 좋은 순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 간 협업의 힘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35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다. 주민세 환원 사업,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2021년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주)포스코 HY 클린메탈과 투자협약 울촌산단 170,000㎡에 이차전지(LIB) 유가금속 추출 공장 지어

광양시가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과 1,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라남도청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호 광양부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창화 포스코 부사장, 지우항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 대표, 중국의 귀산단 화유코발트 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은 포스코와 코발트, 리튬, 망간 등 유가금속 추출 기술을 가진 중국의 화유코발트가 설립한 합작기업(JV)으로, 울촌산업단지 170,000㎡에 1,2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LIB) 유가금속 추출 공장을 짓는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양시가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과 1,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라남도청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호 광양부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창화 포스코 부사장, 지우항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 대표, 중국의 귀산단 화유코발트 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에이치와이 클린메탈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배터리 소재(니켈, 코발트, 망간)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해 국내 양극재 산업의 핵심원료로 국산화하고, 추출된 유가금속은 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미래 신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양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광양시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 마무리”

보성군, 역점 시책...마을 공동체 부활 참여자치 성숙



나무 전정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한 보성600사업 중 주목할 만한 마을은 득량면 월평마을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들장 산지인 득량 오봉산을 형상화한 소규모 공원을 마을에 조성했다.

마을 공동체 부활과 성숙한 참여자치 문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성군 역점시책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이하 보성600사업)이 마무리 됐다.

보성군은 2020년부터 보성군 역점시책으로 보성600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600개의 자연 마을 중 작년에 285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273개 마을 8,0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했다.

보성600 사업은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관리 방안,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들을 논의한 후 결정하면 보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작년 보성600 사업에서 두름, 해바라기 등 소득 작목을 식재한 곳에서는 올해 작목을 수확해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기도 했다.

완성도 있는 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잡초 제거,

마을 입구에 조성된 공원에는 구들장을 옮기는 소 달구지 조형물을 설치해 오봉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봉산의 역사와 구들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회전면 원서당 마을은 마을 입구부터 안길까지 마을의 유래와 자연 경관 등을 마을 담벼락에 그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광객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보성에서 20년 넘게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깨끗해진 마을 모습을 보면서 우편배달을 하니 기분이 좋고,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600 사업으로 주민들이 심어진 주체성을 유지·확산해 나가고자 '우리 동네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 주민이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풀을 베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성=김택수기자



여수시, 전라남도 최초 '전자게시대'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광고 효과 ↑

교통 요지에 전자게시대 2개소 도입...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여수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전자게시대 도입해 설치를 완료하고,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월 31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해 LED전광판을 활용하는 일종의 전자현수막을 도입했다.

이번 전자게시대는 차량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교차로와 오림동 여수종합버스터미널 앞 2개소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설치했다.

구조는 가로 6m, 세로 1m 전광판을 2단으로 쌓은 형태로 시민들

이 익숙한 현수막과 유사해 광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상업광고와 더불어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계첩을 방지하고 지정 게시대의 현수막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등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군 '꿈꾸는 예술터', 문체부 공모 단독 선정

고흥군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단독 선정됐다고 5월 31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5개 시·군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고흥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고흥읍에 위치한 옛 고흥평생교육관에 국비 10억원, 군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

사를 거쳐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삶의 미적가치를 위한 '고흥군 꿈꾸는 예술터 예술정원'을 주제로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예술로 탐험하는 예술캠프를 비롯해 장난감교실, 예술작업실, 전시실, 천문교실, 생각하는 손 작업장, 옥상 예술터널 등을 갖춘 예정이다.

송귀근 군수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관후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다양한 세대가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허브로 손색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